

## 59 | 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협심증, 고혈압, 말초신경염

성별	남	나이	66세	직종	타이어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 1 | 개 요

퇴직 근로자 A는 약 16년 4개월간 A사에 근무 후 퇴사, 이후 2000년 1월부터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3년 11월경 안정성 협심증, 2006년 3월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았다. 2009년 3월에 말초신경염을 진단받았다.

###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A는 경비업무에 10년간 종사하다가 퇴직, 3년 후 1981년 10월 1일 A사 B공장에 입사하여 1998년 1월 31일 퇴사까지 정련과에서 청소 및 약품 투입업무를 하였다. 특히 약품투입업무는 퇴사 전 1년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퇴직 후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3월 1일까지 경비업무를 하였다. A사 역학조사 결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일반적인 유해물질, 메틸렌 클로라이드나 질산염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티렌과 1,3-부타디엔 등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은 측정 결과 불검출 또는 미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 A는 협심증 진단 당시 근로자 나이 60세였고, 진단받을 당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및 과거력

이 모두 없는 상태였다. 고혈압은 근로자의 나이가 63세이고, A사에서 퇴사하여 노출에서 회피된 후 10년이 지난 후 진단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나이와 같은 60-69세의 고혈압 유병율은 45.9%로 매우 높으며, 근로자의 연령을 고려해 볼 때 고혈압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자연적인 질병 경과보다 조기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말초신경염은 근로자 나이 66세에 진단받은 감각성 말초신경염으로 하지 중심이며 초진 이후 6개월 후에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였다. 말초신경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은 가장 흔한 말초신경염의 원인이 되는데, 근로자의 의무기록 조회로 2006년 4월 2형 당뇨를 진단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직업적으로 신경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 4 결 론

근로자 A는

- ① 약 16년 4개월간 A사 B공장 정련공정에서 청소와 약품 투입업무를 수행하였다. 퇴사 후 주택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퇴사 후 5년 이상 지난 후 협심증, 고혈압, 그리고 말초신경염을 진단받았는데,
- ② 협심증은 진단 당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저 요인들이 없어 업무상 요인들이 촉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낮으며,
- ③ 고혈압은 상병이 진단된 시점의 근로자의 연령, 그리고 동시기에 발견된 당뇨와의 인과적 관련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 ④ 말초신경염은 경과가 만성적이고 감각신경 중심의 초기 신경염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진단시점보다 3년 선행하였던 근로자의 개인질병인 당뇨와 인과적인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A에게서 발생한 위 상병들은 작업 중 유해 물질 노출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